

건강을 지키는 현장

무료진료사업으로 10여년을 이어온

영락교회 의료봉사회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간혹 거리의 동남편들에게 동전을 던지기는 쉽지만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이웃을 위해 할애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것도 한때의 치기가 아니라 꽤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영락교회 의료봉사회는 이 어려운 일을 10년도 훨씬 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고 있다.

무의촌 의료봉사, 도시 영세민 무료진료 등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기를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새롭게 나누는 것일뿐 결코 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분주

예배를 보기 위해 몰려든 신자들로 가득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의 일요일 오후.

의무실 역시 찾아오는 사람들로 매우 분주하게 보인다.

방금, 이마를 다친 할아버지 한분이 업혀들어와 치료를 받고 커튼 뒤의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의료봉사회의 김세환 회장님(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세환 피부비뇨기과의원장)과 조승운 총무님(중구 인현동 혜정병원 방사선과장)을 만났다.

의료의 폭이 많이 확대된
지금, 의료봉사회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김세환 회장(사진우)과
조승운 총무(사진좌)는
이야기 한다.



◦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영락교회 의료봉사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정식 발족을 하게 된 것은 '80년 4월 11일이지요』라고 입을 여는 김세환 회장은 의료봉사회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온 분이시다.

그는 의료봉사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소중한 보물을 한가지씩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공동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의료를 통한 사회봉사를 택했습니다.

의료봉사회는 처음에 소아과, 내과, 외과, 피부과, 한의과, 정신과,

건강을 지키는 현장

임상병리와 전문의를 비롯해 약사, 간호사, 의대생 등 64명의 구성원이 모여 시작되게 되었다고 한다.

중간에 몇몇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지만 초창기의 멤버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김회장의 설명이다.

◦ 의무실 운영과 순회 봉사가 대표적인 일

봉사회의 일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의무실의 운영이고 또 하나는 외부지역 순회 봉사이다.

『외부지역 순회 봉사는 하기봉사가 주를 이룹니다. 무의촌이나 농어촌의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실시하지요. 초창기나 지금이나 하기 봉사는 1년에 한번이지만 초창기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순회 진료를 나갔습니다. 10년동안 전국 각도의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한달에 한번정도 나가지요. 이젠 의료시혜의 폭이 확대되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지요. 국민소득 5천불의 시대가 되었으니까요.』라며 김회장은 밝게 웃는다.

◦ 달동네 지역 봉사에도 관심 가져

의료봉사회는 이외에도 기생충검사와 투약, 봉사회 소속의 개업 의사가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진료를 비롯해, 월남 피난민 400여명에게 무료진료권을 발행해 주어 10여년동안 각개업의가 진료를 맡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달동네 지역의 진료에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4월, 두번에 걸쳐 성북구 하월곡동의 빈민촌에 있는 총영교회의 요청으로 진료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80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요.』라고 조승운총무가 설명한다.

◦ 10년동안 13만 3천 4백여명에 진료 혜택

봉사회는 영락교회의 지원금 1천6백만원과 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대부분 약품구입에만 사용합니다. 기타 운영비는 모두 회비를 이용해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의료봉사회는 교회내 의무실 운영 외에도 하기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의료의 혜택을 나누어 주고 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조총무의 얘기다.

그는 또, 『이렇게 운영되는 저희 의료봉사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80년부터 지금까지 1,752회의 진료봉사를 통해 13만3천4백여명입니다.』라고 말한다.

• 외부의 의료요청도 받는다.

영락교회 의료봉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의료요청도 받는다. 서울에서 먼 지역은 하기봉사 때 밖에 나갈 수 없지만, 서울에서 2시간 이내의 수도권지역은 현지답사 후 월1회 정도 진료를 나갈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락교회 의료봉사회 의무실(중구 저동2가 69번지. 전화 273-6301 교 373)로 하면 된다. 전화는 물론 일요일만 가능하다.



• 이제 새로운 발전 방향도 모색할 터

한편 이웃사랑의 실천을 오랫동안 계속해온 이 의료봉사회는 요즘들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김세환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무의촌이 많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진료봉사도 방향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의료의 질 속에서도 분명히 희생되고 있을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탈피하여 X-Ray, 암검사 등을 통한 질병의 발견을 위한 진료로의 방향전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지원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겠지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나는 혹시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해본 적이 있나 생각하면서, 영락교회 의료봉사회의 씩씩은 이웃사랑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72

지난 10년동안
1,752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13만3천4백여명에
의료 혜택을 주었다.